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② 제다에 대하여

제다법 변화, 차문화 발전 원동력

차를 만드는 공정 과정을 제다(製茶) 혹은 조다(造茶)라고 부른다. 이는 뜨거운 솥이나 수증기를 이용해 찻잎을 찌거나 덖어 말리는 과정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다 과정에서 찻잎을 찌거나 덖는 연유는 무엇일까. 바로 뜨거운 불이나 수증기를 이용하여 생 찻잎이 지닌 독성을 중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다의 정의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차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너무 쓰거나 떫은맛을 지닌 생잎을 화후(火候)로 조절하여 차의 오미(五味)를 풍성하고도 조화롭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울러 좋은 차를 항상 보관해 두기 위한 것도 제다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완성된 차의 모양에 따라 덩이차(餠茶), 단차(團茶), 산차(散茶), 혹은 초차(草茶)라고 부른다. 병차와 단차는 덩이차 종류로 당송 시대와 신라, 고려시대에 음용했던 차의 종류이며 오늘날 흔히 접할 수 있는 잎차는 산차, 혹은 초차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좋은 차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열망은 차 문화사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시도되었는데, 이는 오랜 경험과 시도로 노하우가 쌓임에 따라 차의 진수를 드러낼 묘수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얻어낸 제다의 묘수는 다서(茶書)를 통해 확인되는데 그 첫째 조건으로 친자연적인 차나무의 생육환경에 주목했다. 그들은 색, 향, 미, 기세가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계곡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했으며 바위가 있는 곳에서 자란 차를 귀하게 여겼다.

이들은 계곡이나 바위가 있는 곳은 차나무가 습윤한 생육환경에서 자라야 좋은 차 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바위가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지역임으로 물 빠짐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옛사람들이 바위가 부서진 곳에서 자란 찻잎을 좋다고 인식한 배경에는 천지의 순수한 정기(精氣)가 뭉쳐진 것이 바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나무의 생육 조건은 맑고 빼어난 정기를 품고 있는 자연환경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차를 따는 시점과 찻잎의 익힌 정도에 따라 좋고 나쁜 차의 품질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차를 따는 시점의 적절성은 좋은 차(茶)와 질이 낮은 차를 결정하는 조건이며, 딴 찻잎을 잘 선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찻잎을 어떻게 익혔는지는 좋은 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다. 불(火候)의 온도 변화를 간파하여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차의 진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제다의 발달사는 화후로 귀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차싹을 찌는 모습.

좋은 차 얻기 위한 노력들 통해
제다의 묘수 발견…茶書에 기록
당나라 유학승들 덩이차 전래해

옛 문헌인 〈봉씨견문록〉에는 채다(採茶) 시점에 따른 차의 명칭을 "일찍 따서 만든 것을 차라고 하며, 늦게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명이라 한다(早采者爲茶, 晩采者为茗)"고 하였다. 물론 좋은 차를 얻기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은 제다법을 변화시킨 요인이다.

그러므로 제다법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차를 끓이는 법도 자다법(煮茶法), 팽다(烹茶), 점다(點茶), 전다(煎茶) 등으로 변화되었다. 제다 방법의 변화란 탕법이나 찻그릇의 쓰임새, 크기와 색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의 시문(詩文)에는 시다(試茶), 혹은 시(試)라는 단어가 보인다. 이는 차를 끓인다는 의미이다. 원래 시(試)란 잠시, 떠보다, 살피다, 비교해보다, 검증하다, 익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차를 끓이다'는 의미를 시다(試茶)로 표현하였으니 이는 차를 끓이는 일을 '살피고 비교하며, 검증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는 연유는 바로 차를 잘 끓이는 것이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 방법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우선 차를 잘 끓이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선별할 수 있는 감식안이 있어야 하며, 차의 색, 향, 기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물을 판별하여 준비해야 한다. 물은 차의 몸이고, 차는 물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물을 잘 끓여서 차의 진수(眞髓)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센불(武火)과 여린 불(文火)을 조절하여 너무 끓거나 덜 끓지 않은 상태, 즉 차의 좋은 성분이 잘 용해될 수 있는 조건, 물의 온도 순숙의 상태를 간파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다관과 찻잔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차의 색, 향, 기미를 담아낼 수 있는 찻그릇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한 잔의 차를 얻기 위한 조건이란 좋은 물과 불, 차와 물의 양, 침출 시간, 차의 온도 유지 등 그 적합성을 파악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다(試茶)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아우른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가 소개된 것은 대략 7세기경 무렵이다.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신라스님들은 차와 융합된 새로운 수행법을 익힌 후 귀국하면서 차를 가져왔으니, 이들이 가져온 차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덩이차(餠茶)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차문화 유입 초기의 상황은 최치원(857~?)이 쓴 〈진감화상비명〉에 "중국차를 받치는 자가 있으면(有漢茗供者)"이라고 한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감 국사(774~850)가 당나라에서 829년(태화 3) 귀국한 후 화개 옥천사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그가 언급한 한명(漢茗)은 8~9세기경 당에서 생산된 덩이차였음을 말해준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④

1. 불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불교는 업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불교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제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③ 불교는 무아를 설하지만 참다운 나를 찾고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④ 불교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 하늘세계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한다.
⑤ 불교는 금욕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인내를 강조한다.

해설 : 불교는 업사상을 인정하며, 깨끗한 믿음 위에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하늘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다시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른 고통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음으로 하늘세계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해탈은 맹목적인 금욕수행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고통에 대한 인내(고행주의)를 넘어서 중도를 실천하여야 한다.

2. 불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
②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③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독자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④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음과 이해가 일치한다.
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시한다.

해설 :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과의 법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객관적이며 보편적임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받는 영향에 따라 그 원인과 결과가 정해짐으로 타인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완전히 독자적이며 모든 것을 배타할 수 있는 존재란 없다.

3. 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② 불교는 마음의 정화를 중시하는 종교이다.
③ 불교는 절대자의 구원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④ 불교는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이다.
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이다.

해설 :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터득하며 자비를 실천하여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이다. 그렇기에 불교는 절대자의 구원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4. [보기]의 내용 중 불교적 가치관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현재의 힘든 삶을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ㄴ.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
ㄷ.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삶에 순응한다.
ㄹ. 모든 일에는 그러할 만한 원인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모든 괴로움을 자신의 무지와 이기적인 욕심의 결과로 여긴다.

① ㄱ, ㅁ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해설 : 불교는 정해진 운명이나 신의 뜻, 우연 등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인과로서 설명한다. 그럼으로 자신이 받는 고통은 주로 자신이 이전에 무지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 행위들의 결과로 여겨진다.

5. 불교의 인간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본다.
②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다.
③ 인간의 심성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이지만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苦)'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④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자로 본다.
⑤ 수기(修己)와 수양(修養)을 강조하며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人)이라 부른다.

해설 : ①은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③, ④는 유교의 인간관이다. ②의 경우 불교는 자연이든 인간이든 인과의 관계로 설명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불교는 본래 청정한 마음에 무지와 탐욕 등의 번뇌가 일어나 고통이 생긴다고 본다.

정답 : 1.③ 2.③ 3.③ 4.③ 5.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기간 : 23년 12월 4일~24년 1월 31일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 십만원 이상 구매 시 인근 지역(포항,경주,영천) 배달 해드립니다.

1층 2층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3,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중국산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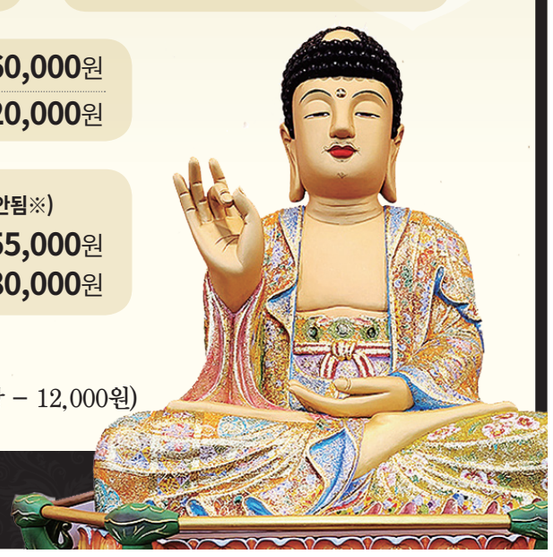
식물성 양초 특제품 (흰색,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 70,000원
5일초 24개 ····· 80,000원
3일초 40개 ····· 80,000원
1일초 100개 ····· 90,000원
15일초 12개 ····· 110,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5,000원
15일 ····· 80,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대표번호 : 054-762-8200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새마을 9003-2562-87257 (임건순) • 기업은행 010-2082-2100 (임건순)